

사라진 연말 특수…광주·전남 소비심리 ‘꽁꽁’

12월 소비자심리지수 112.9로 전월 대비 1.8p 내려

하반기 회복세 주춤…내년 상반기 소비 침체될까 우려

올 하반기 들어 회복세를 보이던 광주·전남 소비심리지수가 ‘연말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면서 내년 상반기 소비침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한국은행(한은)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25년 12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12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9로 전월(114.7) 대비 1.8포인트(p) 하락했다.

CCSI를 구성하는 주요 6개 지수 역시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지수 기여도를 보면 가계수입전망과 소비지출전망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현재경기판단(-0.7p), 향후경기전망(-0.6p), 현재생활형편(-0.3p), 생활형편전망(-0.3p)은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CCSI 역시 전월보다 2.5p 하락한 109.9를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매년 12월은 크리스마스를 겨냥한

연말 할인행사가 잇따라면서 설날·추석 등 명절 특수에 버금가는 ‘연말 특수’를 누리고 CCSI도 상승 추세를 보인다. 각 유통업체들의 매출도 크게 뛰어 대목 중 하나로 꼽힌다.

이같은 연말 특수는 코로나19 시기에도 팬데믹 초기를 제외하고 엔데믹 전인 2022년 12월(+2.1p)에도 상승세를 보였고, 엔데믹 후에는 2023년 12월(+2.8p)에 상승폭을 확대했다.

일단 연중 최대 특수를 자랑하는 12월 중 광주·전남 CCSI가 하락한 것은 최근 반년 새 소비심리가 크게 개선된 영향이 일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CCSI는 지난 20년 간의 장기평균치를 기준점인

100으로 두고, 기준점 초과 시 소비심리가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광주·전남 CCSI는 2023년 코로나 엔데믹 이후부터 올 4월까지도 80~90선을 오르내리며 침체 양상을 보여왔으나,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취임 당시 101.5로 올라서며 2022년 5월(103.2) 이후 37개 월만에 지역민들의 소비심리가 낙관적으로 돌아섰다. 이어 올 하반기내내 소비심리가 회복하는 모양새를 유지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소비 활성화 정책 등에 따라 7월에는 광주·전남 CCSI가 110.1로 대폭 상승했고, 9·10·11월에는 3개월 연속 상승세도 지속됐다.

한은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최근 반년 새 광

주·전남 CCSI가 30p 이상 급격히 치솟았다”며 “이미 소비심리가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특별한 상·하방 압력이 없다면 현재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선 지역 유통업계가 다양한 할인행사 등 연말 시즌을 겨냥한 적극적인 이벤트에 나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소비자심리지수 하락이 일시적 현상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의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소비쿠폰 효과 등이 끝난 이후 소비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면서 “고물가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소비 침체가 지속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肯텍-한전-전남도, 영암에 수소도시 조성 나선다

산·학·연·민·관 10개 기관 협약

2028년까지 청정수소 플랜트 구축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肯텍)은 “지난 24일 영암군청에서 전남도, 영암군, 한국전력공사, MC에너지 등 산·학·연·민·관 10개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국토부 수소도시 조성사업: 청정수소 실증사업’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肯텍과 한전의 첫 사업화 사례로 꼽히는 영암군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영암군 삼포지구 3000여평 부지에 오는 2026~2028년 35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으로,肯텍의 ‘ADOS(친환경 바이오수소 생산 기술)’와 한전의 ‘IDPP(지능형 디지털 발전 기술)’을 결합한 기술 사업화 모

델이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기술인 ADOS는 이형술肯텍 교수의 교원창업기업인 ‘그리네플’이 개발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비롯한 왕겨, 양파, 잔디, 보릿짚 등 고형물 농도가 높은 유기성 폐기물을 등 농업부산물로부터 직접 재생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폐수 또는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기존 바이오가스 생산 기술보다 400% 정도 높은 생산성도 강점이다.

또한 모듈형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규모 에너지 사업화도 가능한 국내 유일의 바이오 기술로 도 평가받고 있다.

해당 컨소시엄은 오는 2028년까지 2㎿(메가와트)급 청정수소 실증 플랜트를 구축하고 매일 2.1t의 청정수소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오

는 2035년까지는 60㎿급 에너지 자립형 수소 도시로 발전시켜 매일 청정수소 63t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통·발전·생활 등 도시 전반에 수소를 공급하는 지역 순환형 수소 생태계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의 IDPP 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수소 생산 전 주기에 걸친 탄소 발생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국내 최초 바이오 기반 청정수소 인증 확보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전이 청정수소 인증을 확보하게 되면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CHPS)에 참여해 수소발전 단가 절감 및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CHPS가 확산될 시 오는 2030년 기준 수조 원 규모의 전력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게 한전의 설명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직원 자백…외부전송 없는 것으로 조사”

“정보 3천개만 저장, 모두 삭제”

정부 “확인 안된 주장” 발끈

쿠팡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관련,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해 고객 정보를 접근 및 탈취하는 데 사용된 모든 장치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모두 회수·확보했으며 외부 전송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주장했다.

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지문(digital fingerprints)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고,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출자의 진술과 사이버 보안 업체의 조사를 종

합하면 유출자는 탈취한 보안 키를 사용해 고객 계정 3300만개의 기본적인 고객 정보에 접근했으나 이중 약 3000개 계정의 고객 정보만 저장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 2609개의 공동현관 출입 번호가 포함됐다는 게 쿠팡의 설명이다.

유출자는 또 사례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한 후 저

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했으며 고객 정보 중 제3자에게 전송된 데이터는 일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쿠팡은 강조했다.

쿠팡에 따르면 유출자는 재직 중 취득한 내부 보안 키를 탈취, 개인용 데스크톱 PC와 맥북 에어 노트북을 사용해 공격을 시도한 뒤 정보 일부를 해당 기기에 저장했다고 진술했다.

포렌식 조사 결과 이 같은 진술이 사실로 확인

됐고, 유출자가 제출한 데스크톱 PC와 PC에서 사용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4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장치에서 공격에 사용된 스크립트가 발견됐다.

유출자는 언론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도가 나오자 극도의 불안에 빠졌으며, 언론보도를 접한 직후 저장돼있던 고객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쿠팡의 이날 발표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정보 유출 종류 및 규모, 유출 경위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인 사항을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린 데 대해 쿠팡측에 강력히 항의했다”며 “쿠팡이 주장하는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GGM 노동자들

인사 규정 개정 반발

26일 하루 전면파업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GGM)지회가 사측의 인사관리 개정에 반발하며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25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GGM 지회는 26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8시간 전면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조는 사측이 개정을 추진 중인 2025년 겨울철 지급·인사관리 규정이 기술직 노동자를 차별하는 구조라면 이같이 결정했다. 사측이 마련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직 노동자들의 수당은 월 40만원이 인상되지만, 기술직 노동자들의 수당은 월 18만원이 올라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개정안을 고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GM 관계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반직의 승진 제도와 기술직의 직능급을 비교하고 회사 직종 간 반복과 불화를 조정하며 임금 구조 차별을 주장하고 있다”고 입장장을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신세계 최대 80% 할인 ‘팩토리스토어’ 행사



광주신세계는 오는 28일까지 직접 큐레이팅한 상품을 최대 80% 할인하는 ‘팩토리스토어’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중 본관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는 ‘AMI(아미)’, ‘CELINE(셀린느)’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의류, 가방 등 다양한 상품들을 할인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한전KDN, 광주 2개 마이스터고와 업무협약

고졸 채용 활성화 등 협력

한전KDN은 “지난 23일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와 시청각실에서 ‘에너지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우수인재 양성 및 고졸 채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균등 기회’ 분야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에너지ICT 및 전기자동화설비 분야의 고졸 전문 인력 양성 및 채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상시 검정 도입…시행 횟수도 확대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는 “내년 1월부터 국가기술자격 경영정보시각화능력 시험을 기존 정기 검정 방식에서 상시 검정으로 바꾼다”고 25일 밝혔다.

상시 검정 도입은 데이터 기반 산업 구조 확산, 인공지능(AI) 기반 의사결정 도구 활용 증가, 기업의 BI(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수요 확대, 시각화 플랫폼 도입 가속화, 수험자 편의성 제고 등을 고려한 결과다.

경영정보시각화능력은 AI·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해 전달하는 실무 역량을 겨우는 국가기술자격이다. 코카콜라,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국내외 주요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금융기관에서 우대하는 자격이지

아이파라. 광주상의는 내년부터 필기시험을 CBT(컴퓨터 기반 시험) 방식 상시 검정으로 바꾸고 시험일별 여러 시간대를 개설할 예정이다. 실기 시험도 연간 시행 횟수를 늘리고 시험일당 최대 3회까지 운영한다. 내년 경영정보시각화능력 시험은 필기 4회(1월·4월·7월·10월) 실기 4회(2월·5월·8월·11월) 시행된다. 1월 10일 시행 예정인 1차 필기시험의 원서 접수는 대한상의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이나 코참패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